

화물연대 파업...꽉막힌 운송길 광주·전남 산업 현장 물류 차질



멈춰 선 레미콘 차량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 주차장에 차량들이 멈춰 서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화물연대 파업이 28일로 닷새 째를 맞으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업체가 밀집한 여수산업단과 광양제철소의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여수산업단-광양항 등 7개 사·군의 25개 거점에서 정부와의 협상 추이를 파악하며 집결해있는 상태다.

여수산업단의 경우 산업 내 네트워크하우스 앞 길목을 비롯 GS칼텍스 출하장 앞 등 물류 거점 11곳에서 7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였으며, 광양항에서는 허치슨 부두 인근에 수십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해 파업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산업에서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 휘발유·경유 등이 정상적으로 출하하지 못하고 공장 내에 쌓이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긴급 물량은 사전에 출하했고 임시 적치장도 마련해 아직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장 가동마저 중단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광양제철소 물류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육송 운송길이 막혀 철도와 선박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철도 파업마저 예고돼 물류 적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컨테이너 터미널 2곳의 반출입 물동량은 사실상 '0'을 기록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새벽 0시

여수산업단·광양제철소 차질 현실화
목포항도 컨 평균반출입량 밀돌아
광주 기아 완성차 다른 적치장으로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근남 긴급 물류 1TEU(20피트 규격 컨테이너 1대분)에 불과하다. 평시(지난달 기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4625TEU인 것과 비교하면 물류가 멈춘 것이다.

목포항도 일일 컨테이너 평균 반출입량인 211.6TEU를 크게 밀돌아, 전날 하루 통틀어 컨테이너 26TEU만 오고 갔다.

광양항의 경우 부두에 쌓이는 컨테이너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가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아예 달지 않은 채 운행하며 다른 적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완성차를 운송할 카게리어 차량이 멈춰서 생산 물량을 공장 주차장에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운전원 수백 명을 임시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에 옮기고 있다.

공장은 하루 생산량인 2000대를 모두 외부 적치 공간으로 빼는 것을 목표로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개별 운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장은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기존 보관 장소인

평동 출하장(5000대)·장성 물류센터(3000대)에 더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3000대)·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차장(400대)·광주시청 야외음악당(300대) 등 1만1700대 적치 공간을 확보했다. 합평 나비축제장 주차장(2800대), 광주 에너지 밸리 산업 미개통 도로(1000대), 광주 동구 용전동 폐국도(500대) 등 추가 적치 장소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면담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겨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 합의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가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항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긴급 물량 등으로 미리 컨테이너를 출하해 현재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반출입량이 급감, 적치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공연행렬', 1907~1910년경, 종이에 수채, 파스텔, 유채, 잉크, 65 x 100 cm, 풍피 두 센터 소장



구속 없이 자유롭다... 부러운 '광대의 삶'

조르주 루오 지상展

전남도립미술관 2023년 1월까지 전시

'공연행렬'

루오는 어렸을 때 변두리에 서커스 구경을 즐겨 다녔고, 어느 것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 보였던 광대의 삶을 부러워했다. 루오는 1902년경부터 '광대'를 그리기 시작했고,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애정했던 주제였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로트렉, 드가, 쇠라 등 미술가들은 광대와 서커스를 주제로 즐겨 그렸다. 그들은 서커스 단원이나 광대를 객관적이고 냉철한 관찰에 의해 묘사하였다. 그러나 루오가 그린 광대는 직업적인 특성보다 광대의 내면과 인간적인 모습 등을 담으려고 했다.

'공연행렬'은 루오가 1910년경 초기에 그렸던 작품이다. 거칠고 빠른 붓놀림과 디테일의 생략,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이 특징이다.

(장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국가균형발전위, 지방투자산업발전특위 설치

강영환 위원장 등 위원 19명 기회발전특구 등 추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 : ODZ) 추진 사업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회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강영환 대전대학교 겸임교수(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가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

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방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포함한 14명이 선정됐다.

특별위원회는 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과 방향 설정을 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지방투자촉진법 제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산업과 부지선정, 인력육성 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가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 도내 2년 이상 거주 21세~28세 청년에게 1인당 연20만원 문화복지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생명여름은봄처럼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JeollaNamdo